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 겨울철 의복의 착장활동에 관한 비교 연구

정명희[†] · 정화연* · 신은영**

부천대학 의상디자인과, *국제대학 패션계열, **日本文化女子大學校 服裝社會學專攻

A Study of Clothes-Wearing in Winte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by Comparison

Myung Hee Chung[†] · Hwa Yeon Jeong* · Eun Young Shin**

Dept. of Clothing Design, Bucheon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Kookje College

**Dept. of Fashion Sociology Bunka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08년 9월 16일), 수정일(1차 : 2009년 3월 5일, 완료일 : 2009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2009년 3월 24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lothes-wearing in winte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and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apparel manufacturers to produce young woman's clothing. A total of 332 Korean female students in the capital area and 347 Japanese female students in Tokyo aged between 19 and 25 were used into data analysis from December 2007 to January 2008. Their majors were Fashion Design and Clothing & Textiles.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36 questions in total. Their details were as follows: 2 questions about the purposes of wearing clothes in winter, 5 questions about whether or not underwear was worn and its types, 9 questions about the types of wearing outer garments, 17 questions about the types of wearing accessories, and 3 questions abou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many female students wore clothes for "a protection purpose" or "an ornamental purpose" in winte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As for the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underwear was worn in winter, less Korean students answered than Japanese students that they wore both of upper and lower underwear. More upper underwear was worn than lower underwear. As for the question about the types of wearing outer garments, both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ore 3-layered upper garments in winter most. The types of upper garments worn in winter were differ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lower garments worn in winter were differ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The Korean students mainly wore pants while the Japanese students wore skirts. As for the types of accessorie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most of the questions about hats and gloves. Korean students wore them more than Japanese stud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bout whether or not scarves or earmuffs were worn. In both countries, more students wore scarves while less students wore earmuffs.

Key words: Korea, Japan, Female college student, Clothes-wearing; 한국, 일본, 여대생, 의복착장

[†]Corresponding author

E-mail: mhchung719@hanmail.net

I. 서 론

인체는 생리적 적응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착의량 조절, 음식, 운동, 냉난방 등 문화적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인체의 온열환경의 적응범위를 넓혀오고 있다(박승순, 이원자, 1999). 기후적응수단으로써 의복을 이용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착용하는 의복의 양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착의습관에 의해 결정되며 그 지역의 착의실태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착의실태는 그 지역의 환경기후에 적응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Friasancho, 1979). 하지만 착의실태 조사의 경우 착용자의 착용상태에 대한 양적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구범위가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奥窪, 酒井, 1981) 국제간 비교 연구도 극히 적은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착장활동 및 착의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표준착의량 설정을 위한 착의량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대상이나 지역이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稻垣, 山岸(1990)은 1968년과 1986년에 실시한 일본 여대생 착의실태 조사 연구에서 1986년에는 실내환경의 온도조절로 1986년보다 착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런 현상은 하의 중량에서 특히 두드러졌고 의복의 착용매수도 겨울철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심부자, 최선희(1990)는 적정 착의량 설정을 위한 연구로서 부산지역 남자 대학생의 착의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조사대상자들은 환경조건에 적합한 착의상태를 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정영옥(1991)의 표준착의량 설정을 위한 농촌지역 주민의 착의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계절적응은 상의와 겉옷량에 더 많이 의존하였고 착의량의 개인차는 여름에는 적고 겨울에는 많았으며, 또한 남녀별 착의량은 남자가 더 많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총착의량, 겉옷량, 상의량에서 남자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뉴욕 두 지역간 의복착의량의 차이를 비교한 이원자(1994)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착의량이 많았으며, 특히 실내 착의량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상의량과 외의량은 계절변화에 따라 변동이 컸으며 착의내용 분석에서는 진슬렉스와 티셔츠의 착용률이 높았고 한국 여대생이 더 다양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착의량에 있어서는(이원자, 1997) 두 지역간에 차이를 보

였으나 여대생보다는 그 차이가 적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남학생이 내열성, 내한성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오순(1998)의 연구에서는 서울과 연변간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착의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서울의 남녀 모두 겉옷의 상의량 조절로 계절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변은 속옷량으로 계절적응을 하였고 서울의 남녀 학생이 연변의 남녀 학생보다 한서 감각에 있어서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지역간, 국제간의 착의량 비교 연구는 기후적응 측면에서 의생활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표준착의량 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奥窪, 酒井, 1986)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간의 표준착의량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의류생산업체의 내수 및 외수용 의류생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간 여대생의 겨울철 의복의 착장활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사계절을 나타내는 온대성기후이나 겨울철 기온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며 수도인 동경(東京)의 기온은 12월과 1월의 평균기온이 각각 5.2와 7.9로 서울의 -2.5와 0.2보다 따뜻하다(세계기후, 2008). 이와 같은 환경의 차이는 같은 겨울철이라도 착의량과 착장형태에 차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설문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의류와 의상을 전공하는 나이 19세에서 25세 이하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은 서울, 경기권 지역의 여대생 362명, 일본은 동경 지역의 여대생 36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전체 실시한 설문지 중 응답의 누락이 많고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한국 332부, 일본 347부만 통계자료로서 비교분석하였다. 착장은 외출시를 중심으로 한 착장형태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설문내용은 일본어

표현에서 오는 이견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 앞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글과 일본어로 된 설문지의 내용을 검토, 수정,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한글과 일본어로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 2항목, 겨울철 내복의 착용유무와 형태 5항목, 겨울철 겉옷의 착용형태 9항목, 겨울철 액세서리의 착용형태 17항목 및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연령, 한 달 용돈, 한 달 용돈 중 의복비 지출비용 3항목을 포함하여 총 36항목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중 착용목적과 착용유무에 관한 항목은 ‘매우 그렇다’를 1, ‘매우 그렇지 않다’를 5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교차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한 달 용돈, 의복지출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1). 연령은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20~21세가 63.8%와 84.2%로 가장 많았

으며, 22세 이상은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의 보다 많았다. 한 달 용돈과 의복지출비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한 달 용돈 중에 의복지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참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사하였기에 각 나라의 화폐단위를 그대로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한 달 용돈은 한국 여대생은 20~30만원 미만인 여대생이 35.5%, 일본의 경우는 2~4만엔 미만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의복지출비로는 한국 여대생은 5~10만원 미만이 38.3%, 일본 여대생은 1~2만엔 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겨울철 의복지출비는 한국 여대생은 5~20만원 미만(73.6%), 일본 여대생은 1~3만엔 미만(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에 대한 설문은 신체보호와 장식 목적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양 질문에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많았고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2). 평균값으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신체보호보다 장식 목적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 겨울철 의복의 착용은 장식보다는 신체보호 목적을 조금 더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단위: n(%))

구 분		한 국	일 본	
나 이	19세	7(2.1)	27(7.8)	
	20세	109(32.8)	144(41.5)	
	21세	103(31.0)	148(42.7)	
	22세	53(16.0)	20(5.8)	
	23세	34(10.2)	5(1.4)	
	24세	13(3.9)	0(0.0)	
	25세	13(3.9)	3(0.9)	
	한 달 용돈	20만원 미만	66(21.3)	2만엔 미만
20~30만원 미만		110(35.5)	2~4만엔 미만	111(35.1)
30~40만원 미만		62(20.0)	4~6만엔 미만	94(29.7)
40~50만원 미만		45(14.5)	6~10만엔 미만	46(14.6)
50만원 이상		27(8.7)	10만엔 이상	25(7.9)
의복지출비	5만원 미만	37(13.4)	1만엔 이하	38(12.3)
	5~10만원 미만	106(38.3)	1~2만엔 미만	94(30.4)
	10~15만원 미만	40(14.4)	2~3만엔 미만	78(25.2)
	15~20만원 미만	58(20.9)	3~4만엔 미만	43(13.9)
	20~30만원 미만	25(9.0)	4~6만엔 미만	36(11.7)
	30만원 이상	11(4.0)	6만엔 이상	20(6.5)

<표 2>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

(단위: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균
신체 보호	한국	62(18.7)	176(53.0)	74(22.3)	15(4.5)	4(1.2)	1(0.3)	2.16
	일본	103(29.7)	151(43.5)	78(22.5)	15(4.3)	0(0.0)	0(0.0)	2.01
장식	한국	24(7.2)	180(54.2)	111(33.4)	16(4.8)	0(0.0)	1(0.3)	2.35
	일본	57(16.4)	181(43.5)	88(25.4)	20(5.8)	1(3.0)	0(0.0)	2.21

3. 겨울철 내복의 착용유무와 형태

1) 내복의 착용유무

내복은 브래지어와 팬티를 제외한 속옷으로, 겨울철 내복을 착용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3-4>와 같다. 겨울철 내복의 착용유무에서는 상의와 하의 모두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 유의한 차이($p \leq .001$)를 보였다. 상의 내복의 경우 한국 여대생은 착용보다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일본 여대생은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의 내복 또한 한국 여대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착용하지 않는 정도도 일본 여대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상의 내복보다는 하의 내복의 착용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기온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 여대생의 내복 착용이 일본 여대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내복의 착용은 기온보다도 겨울철 기온적응능력과 착용습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내복의 형태

겨울철에 내복을 착용하는 경우, 상의 내복의 형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민소매 형태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표 5). 민소매 다음으로는 한국 여대생은 긴소매>반소매>칠부소매, 일본 여대생은 긴소매>칠부소매>반소매 순으로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chi^2=62.78, p \leq .001$)를 보였다.

바지 안에 착용하는 하의 내복의 형태로는 한국 여대생은 스타킹 착용(28.9%)이 가장 많은 반면, 일본 여대생은 타이즈 착용(48.4%)이 가장 많았다(표 6). 다음으로 한국 여대생은 레깅스>타이즈>일반내복, 일본 여대생은 일반내복>레깅스>스타킹의 순으로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chi^2=206.99, p \leq .001$)를 보였다. 착용하는 일반내복과 레깅스의 길이는 한국 여대생은 9부가 45.8%로 가장 많았고 짧은 쇼츠가 2.7%로 가장 적었는데 비해, 일본 여대생은 짧은 쇼츠가 11.5%, 9부는 4.0%로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 겨울철 상의 내복의 착용유무

(단위: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균	t 값
한국	23(6.9)	41(12.3)	68(20.5)	113(34.0)	86(25.9)	1(0.3)	3.59	11.92***
일본	125(36.0)	68(19.6)	61(17.6)	69(19.9)	24(6.9)	0(0.0)	2.42	

*** $p \leq .001$

<표 4> 겨울철 하의 내복의 착용유무

(단위: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균	t 값
한국	6(1.8)	25(7.5)	67(20.2)	117(35.2)	115(34.6)	1(0.3)	4.05	6.45***
일본	56(16.1)	66(19.0)	87(25.1)	70(20.2)	68(19.6)	0(0.0)	3.08	

*** $p \leq .001$

<표 5> 상의 내복의 형태

(단위: n(%))

구분	민소매	반소매	칠부소매	긴소매	기타	무응답	χ^2 값
한국	125(37.7)	28(8.4)	15(4.5)	62(18.7)	8(2.4)	94(28.3)	62.78***
일본	136(39.2)	22(6.3)	65(18.7)	79(22.8)	11(3.2)	34(9.8)	

*** $p \leq .001$

<표 6> 하의 내복의 형태

(단위: n(%))

구 분	일반내복	레깅스	타이즈	스타킹	기 타	무응답	χ^2 값
한 국	4(1.2)	76(22.9)	31(9.3)	96(28.9)	9(2.7)	116(34.9)	206.99***
일 본	44(12.7)	27(7.8)	168(48.4)	20(5.8)	7(2.0)	81(23.3)	

*** $p \leq .001$

4. 겨울철 겉옷의 상의 착용형태

1) 의복 착용 겹침 수

브래지어를 제외하고 겨울철 상의로 착용하는 의복의 겹침 수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3겹 착용이 각각 56.9%와 55.0%로 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7). 3겹 다음으로는 4겹>2겹>5겹 순으로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2겹 착용의 경우 일본 여대생이 거의 두 배의 수치를 나타내며 한국 여대생과의 유의한 차이($\chi^2=11.92$ df=5 $p \leq .05$)를 보였다.

의복의 겹침에 의한 보온효과는 과잉으로 겹쳐 입을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 부담과 동작의 구속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겹침효과가 요구된다(田村, 1991).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보온성과 활동성에서 한국과 일본 여대생이 적합하다고 선호하는 겨울철 의복의 겹침 수는 3~4겹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2) 주로 착용하는 외투의 형태

겨울철에 주로 착용하는 외투의 형태는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한국 여대생은 반코트>롱코트>점퍼>재킷>파카>니트 풀오버, 일본 여대생은 롱코트>반코트>재킷>점퍼>파카>니트 풀오버 순으로 한국과 일본 여

대생 모두 니트 풀오버는 거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수치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 재킷과 점퍼의 경우 점퍼는 한국 여대생이, 재킷은 일본 여대생이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

겨울철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를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터틀넥을 포함한 폴라티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스웨터와 티셔츠, 카디건을 선호하였다(표 9). 그 외에는 한국 여대생은 남방>재킷>블라우스, 일본 여대생은 블라우스>남방>재킷 순으로 한국 여대생은 외투 안에 블라우스 착용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반면, 일본 여대생은 블라우스보다 재킷 착용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폴라티나 티셔츠, 스웨터를 많이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의복의 형태가 내복의 역할을 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혜원(2004)의 연구에서도 20대 여성의 겨울철에 착용하는 상의 내복의 형태는 민소매의 착용이 가장 많았고 안 입을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 내의 대신 티셔츠

<표 7> 의복 착용 겹침 수

(단위: n(%))

구 분	2겹	3겹	4겹	5겹	기 타	무응답	χ^2 값
한 국	35(10.5)	189(56.9)	87(26.2)	18(5.4)	2(0.6)	1(0.3)	11.92*
일 본	66(19.0)	191(55.0)	75(21.6)	14(4.0)	1(0.3)	0(0.0)	

* $p \leq .05$

<표 8> 외투의 형태

(단위: n(%))

구 분	재킷	점퍼	롱코트	반코트	파카	니트 풀오버
한 국	64(19.3)	107(32.2)	129(38.9)	154(46.4)	36(10.8)	22(6.6)
일 본	156(45.0)	50(14.4)	188(54.2)	172(49.6)	45(13.0)	2(0.6)

* ()는 한국 여대생(n=332)과 일본 여대생(n=347)에 대한 비율임.

<표 9> 외투 안 의복의 형태

(단위: n(%))

구 분	폴라티	티셔츠	남 방	블라우스	재킷	카디건	스웨터
한 국	197(59.3)	99(29.8)	21(6.3)	9(2.7)	17(5.1)	48(14.5)	116(34.9)
일 본	169(48.7)	127(36.6)	22(6.3)	52(15.0)	20(5.8)	86(24.8)	157(45.2)

* ()는 한국 여대생(n=332)과 일본 여대생(n=347)에 대한 비율임.

<표 10> 외투 안 의복스타일

(단위: n(%))

구 분	폴라티+폴라티	티셔츠+티셔츠	남방+남방	폴라티+티셔츠	폴라티+남방	폴라티+블라우스
한 국	3(0.9)	52(15.7)	3(0.9)	52(15.7)	18(5.4)	4(1.2)
일 본	4(1.2)	18(5.2)	4(1.2)	20(5.8)	23(6.6)	24(6.9)
구 분	폴라티+카디건	폴라티+스웨터	티셔츠+남방	티셔츠+블라우스	티셔츠+카디건	티셔츠+스웨터
한 국	93(28.0)	51(15.4)	31(9.3)	6(1.8)	86(25.9)	101(30.4)
일 본	110(31.7)	70(20.2)	16(4.6)	32(9.2)	143(41.2)	125(36.0)

*()는 한국 여대생(n=332)과 일본 여대생(n=347)에 대한 비율임.

나 폴로셔츠의 착용을 제시하며 본 연구결과와 상응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4)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겨울철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또한 2가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약간의 차이는 보였으나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다른 스타일에 비해 티셔츠+스웨터, 폴라티+카디건과 티셔츠+카디건 스타일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은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폴라티+폴라티, 남방+남방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 차이를 크게 보인 스타일은 폴라티+블라우스, 티셔츠+블라우스로 한국 여대생은 거의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었다.

5. 겨울철 겉옷의 하의 형태

1) 하의 형태

겨울철에 주로 착용하는 하의의 형태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chi^2=68.49, p<.001$)를 보였다(표 11). 한국 여대생은 주로 바지를 착용하는 경우가 전체 비율의 반 이상이었고, 바지만을 착용하는 여대생도 21.4%로 바지 착용이 현저하였다. 반면, 일본 여대생은 주로 스커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스커트만 착용한다는 응답률도 한국 여대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橋本, 小林(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의 바지와 스커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스커트의 선호도가 더 많았으며, 통학이나 쇼핑 등에는 바지를, 포털한 장소나 데이트 등에는 스커트를 착용하였고, 바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각각 동작의 편리성과 신체 보온성 등, 스커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많은 스타일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바지와 스커트의 착용은 TPO, 즉 때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착용행동에 있어서 선택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일본 후쿠이시(福井市)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착장활동을 조사한 海道, 服部(2005)의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여대생들의 바지 착용이 스커트 착용에 비해 상당히 많았으며, 선호하는 스커트 길이는 무릎길이로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착장형태에 있어서 일본 여대생의 지역간 선호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

2) 주로 착용하는 바지의 형태

겨울철에 주로 착용하는 바지의 형태로는 한국 여대생은 정장바지 선호가 0.9%인 반면 레깅스는 8.7%, 일본 여대생은 정장바지 선호가 1.2%, 레깅스가 2.3%로 유의한 차이($\chi^2=19.11, df=5, p<.05$)를 보였다(표 12). 전체적으로

<표 11> 하의 형태

(단위: n(%))

구 분	바지만 착용	스커트만 착용	바지 주로 착용	스커트 주로 착용	기 타	무응답	χ^2 값
한 국	71(21.4)	10(3.0)	177(53.3)	66(19.9)	5(1.5)	3(0.9)	
일 본	30(8.6)	37(10.7)	132(38.0)	137(39.5)	11(3.2)	0(0.0)	

*** $p<.001$

<표 12> 바지의 형태

(단위: n(%))

구 분	정바지	정장바지	캐주얼바지	레깅스	기 타	무응답	χ^2 값
한 국	244(73.5)	3(0.9)	45(13.6)	29(8.7)	3(0.9)	8(2.4)	
일 본	261(75.2)	4(1.2)	48(13.8)	8(2.3)	11(3.2)	15(4.3)	

* $p<.05$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청바지를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73.5%와 75.2%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청바지 다음으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캐주얼바지>레깅스>정장바지의 순으로 정장바지의 선호도는 극히 낮았다.

3) 주로 착용하는 스커트의 형태

겨울철에 주로 착용하는 스커트의 형태에서도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chi^2=183.16, p\leq.001$)를 보였다(표 13). 한국 여대생은 미니스커트에 레깅스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는데 비해 일본 여대생은 11.2%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 여대생이 가장 많이 응답한 무릎길이 스커트의 경우는 반대로 한국 여대생의 응답률은 8.7%에 불과했다. 또한, 롱스커트를 응답한 한국 여대생이 한 명도 없는 반면에 일본 여대생의 응답률은 8.4%로 나타났다.

4) 스타킹이나 타이즈의 착용 여부

롱스커트, 무릎길이 스커트, 미니스커트를 착용하는 경우 스타킹이나 타이즈를 착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14>,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p\leq.001$)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의 50.3%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일본 여대생은 35.2%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는 한국이 0.6%, 일본이 1.4%로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는 스타킹이나 타이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레깅스와 함께 착용하는 형태

스커트와 레깅스를 함께 착용하는 경우 발에 착용하는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chi^2=155.20, p\leq.001$)를 보였다(표 15). 한국 여대생은 스타킹이 37.3%로 가장 많은 반면, 일본 여대생은 2.3%로 가장 적었다. 한국 여대생은 스타킹 다음으로 양말>맨발>타이즈, 일본 여대생은 양말이 2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이즈>맨발>스타킹 순으로 나타났다.

6. 겨울철 액세서리의 착용형태

1) 모자

겨울철 모자의 착용유무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p\leq.01$)를 보였다(표 16).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한국 여대생은 0.6%에 불과했으나 일본 여대생은 1.7%, ‘매우 그렇지 않다’의 경우도 한국 여대생이 11.4%, 일본 여대생이 24.5%로 두 나라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 모자를 매우 자주 착용하는 경우와 착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가장 많았다.

<표 13> 스커트의 형태

(단위: n(%))

구 분	롱 스커트	무릎길이	미니스커트	롱+레깅스	무릎길이+레깅스	미니+레깅스	기 타	χ^2 값
한 국	0 (0.0)	29 (8.7)	67 (20.2)	5 (1.5)	35 (10.5)	126 (38.0)	1 (0.3)	183.16***
일 본	29 (8.4)	101 (29.1)	90 (25.9)	8 (2.3)	66 (19.0)	39 (11.2)	7 (2.0)	

*** $p\leq.001$

<표 14> 스타킹 / 타이즈의 착용유무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 균	t 값
한 국	167(50.3)	36(10.8)	10(3.0)	3(0.9)	2(0.6)	114(34.3)	0.87	-4.46***
일 본	122(35.2)	50(14.4)	40(11.5)	16(4.6)	5(1.4)	114(32.9)	1.24	

*** $p\leq.001$

<표 15> 레깅스와 함께 착용하는 형태

(단위: n(%))

구 분	스타킹	타이즈	양 말	맨 발	기 타	무응답	χ^2 값
한 국	124(37.3)	15(4.5)	46(13.9)	28(8.4)	7(2.1)	112(33.7)	155.20***
일 본	8(2.3)	57(16.4)	97(28.0)	32(9.2)	1(0.3)	152(43.8)	

*** $p\leq.001$

겨울철에 착용하는 모자의 개수에 관한 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chi^2=13.72, p<.05$)를 보였으나 <표 17>, 한국과 일본 여대생 대부분이 1개 이상의 모자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겨울철에 모자를 착용하는 목적에 관한 조사에서도 신체보호와 장식적 목적 양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표 18). 즉, 모자의 신체보호 목적에서는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장식적 목적에서는 한국 여대생이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은 낮은 반면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은 더 높게 나타나 일본 여학생과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국 여대생보다 일본 여

대생이 조금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 머플러

겨울철 머플러의 착용유무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9). 한국 여대생이나 일본 여대생 대다수는 겨울철에 머플러를 착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착용하는 머플러의 매수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3매, 4매를 소유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겨울철에 머플러를 착용하는 목적으로는 신체보호 목적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으나, 장식적 목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표 16> 모자 착용유무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 균	t 값
한 국	2(0.6)	15(4.5)	143(43.1)	133(40.1)	38(11.4)	1(0.3)	3.56	-2.72**
일 본	6(1.7)	27(7.8)	100(28.8)	129(37.2)	85(24.5)	0(0.0)	3.74	

** $p<.01$

<표 17> 모자 개수

(단위: n(%))

구 분	1개	2개	3개	4개	기 타	무응답	χ^2 값
한 국	65(19.6)	73(22.0)	68(20.5)	48(14.5)	68(20.5)	10(3.0)	13.72*
일 본	58(16.7)	84(24.2)	63(18.2)	48(13.8)	61(17.6)	33(9.5)	

* $p<.05$

<표 18> 모자의 착용목적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 균	t 값
신체 보호	한 국	7(3.6)	59(32.8)	145(40.7)	99(17.5)	19(4.5)	3(0.9)	9.28***
	일 본	10(2.9)	92(26.5)	90(25.9)	63(18.2)	15(4.3)	77(22.2)	
장식	한 국	12(3.6)	109(32.8)	135(40.7)	58(17.5)	15(4.5)	3(0.9)	11.09***
	일 본	45(13.0)	114(32.9)	84(24.2)	24(6.9)	6(1.7)	74(21.3)	

*** $p<.001$

<표 19> 머플러 착용유무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 균
한 국	55(16.6)	132(39.8)	126(38.0)	18(5.4)	0(0.0)	1(0.3)	2.32
일 본	94(27.1)	118(34.0)	93(26.8)	38(11.0)	4(1.2)	0(0.0)	2.25

<표 20> 머플러 매수

(단위: n(%))

구 분	1매	2매	3매	4매	기 타	무응답
한 국	14(4.2)	63(19.0)	93(28.0)	88(26.5)	71(21.4)	3(0.9)
일 본	24(6.9)	82(23.6)	96(27.7)	87(25.1)	58(16.7)	0(0.0)

이지 않았다(표 21). 신체보호 목적의 경우 한국의 여대생은 '매우 그렇다'에 강하게 동의한 반면 일본 여대생은 '그렇다'와 '보통'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과의 기온차를 반영한 것으로 겨울철 기온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 여대생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머플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장갑

겨울철 장갑의 착용유무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p \leq .01$)를 보였다(표 22). 겨울철에 장갑의 착용유무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응답율이 한국 여대생은 26.8%인데 비해 일본 여대생은 44.7%로, 한국 여대생이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착용하는 장갑의 개수도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chi^2=20.91, p \leq .05$)를 보였다(표 23).

겨울철에 장갑을 착용하는 목적에서도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p \leq .001$)를 보였다(표 24). 신체보호 목적의 경우 한국 여대생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률이 많은 반면, 일본 여대생은 '그렇다'와 '보통'의 응답률이 많았다. 또한 장식적 목적에서는 두 나라 모두 '보통'과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수치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겨울철에 장갑을 착용하는 목적으로 장식보다는 신체보호 목적을 더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신체보호와 장식적 목적 모두에서 한국 여대생보다 일본 여대생이 조금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머플러의 착용목적

(단위: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균	t 값
신체 보호	한국	49(50.3)	181(10.8)	86(3.0)	11(0.9)	4(0.6)	1(0.3)	2.21
	일본	98(28.2)	162(46.7)	67(19.3)	13(3.7)	6(1.7)	1(0.3)	2.03
장식	한국	17(5.1)	115(34.6)	124(37.3)	72(21.7)	2(0.6)	2(0.6)	2.76
	일본	34(9.8)	114(32.9)	115(33.1)	72(20.7)	10(2.9)	2(0.6)	2.72

** $p \leq .01$

<표 22> 장갑 착용유무

(단위: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균	t 값
한국	29(8.7)	68(20.5)	145(43.7)	80(24.1)	9(2.7)	1(0.3)	2.91	-3.19**
일본	41(11.8)	64(18.4)	87(25.1)	102(29.4)	53(15.3)	0(0.0)	3.18	

** $p \leq .01$

<표 23> 장갑 개수

(단위: n(%))

구분	1개	2개	3개	4개	기타	무응답	χ^2 값
한국	110(33.1)	129(38.9)	49(14.8)	14(4.2)	25(7.5)	5(1.5)	20.91*
일본	143(41.2)	103(29.7)	39(11.2)	11(3.2)	27(7.8)	24(6.9)	

* $p \leq .05$

<표 24> 장갑의 착용 목적

(단위: n(%))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균	t 값
신체 보호	한국	72(21.7)	181(54.5)	63(19.0)	12(3.6)	2(0.6)	2(0.6)	2.05
	일본	47(13.5)	105(30.3)	136(39.2)	40(11.5)	12(3.5)	7(2.0)	1.67
장식	한국	8(2.4)	52(15.7)	106(31.9)	147(44.3)	17(5.1)	2(0.6)	3.32
	일본	15(4.3)	49(14.1)	106(30.5)	104(30.0)	28(8.1)	45(13.0)	2.84

*** $p \leq .001$

4) 귀막이

겨울철 귀막이의 착용유무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대다수가 겨울철에는 귀막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지니고 있는 귀막이의 개수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차이($\chi^2=109.15, p\leq.001$)를 보였다(표 26).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기타 란에 약 98% 이상이 '0개'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으로부터 한국 여대생의 약 70%는 귀막이가 전혀 없음을, 일본 여대생은 약 70%가 귀막이가 전혀 없거나 1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겨울철에 귀막이를 착용하는 목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유의한 차이($p\leq.001$)를 보였다(표 27). 신체보호 목적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그렇다' 혹은 '보통'의 응답률이 많았다. 장식적 목적에서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에서 두 나라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보호와 장식적 목적 모두 한국 여대생보다 일본 여대생이 조금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귀막

이는 거의 착용하지 않지만 일본의 겨울철 기온이 한국보다 높고 귀막이를 착용할 정도의 기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막이를 착용하는 것은 일본 여대생은 귀막이를 장식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5) 신발

겨울철에 주로 신는 신발의 형태를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롱부츠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표 28). 롱부츠 다음으로 한국 여대생은 스니커즈>구두>앵글부츠, 일본 여대생은 구두>앵글부츠>스니커즈 순으로 나타났다. 스니커즈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에 수치적 차이가 컸는데 한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보다 스니커즈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겨울철에 주로 착용하는 하의 형태의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스커트 착용이 대부분인 일본 여대생들은 주로 부츠나 구두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5> 귀막이 착용유무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 균
한 국	4(1.2)	13(3.9)	39(11.7)	143(43.1)	133(40.1)	4.17
일 본	11(3.2)	31(8.9)	38(11.0)	88(25.4)	179(51.6)	4.13

<표 26> 귀막이 개수

(단위: n(%))

구 분	1개	2개	3개	4개	기 타	무응답	χ^2 값
한 국	61(18.4)	10(3.0)	4(1.2)	3(0.9)	241(72.6)	13(3.9)	109.15***
일 본	122(35.2)	33(9.5)	5(1.4)	0(0.0)	122(35.2)	65(18.7)	

*** $p\leq.001$

<표 27> 귀막이의 착용목적

(단위: n(%))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 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평 균	t 값	
신체 보호	한 국	42(12.7)	94(28.3)	88(26.5)	52(15.7)	47(14.2)	9(2.7)	2.82	6.02***
	일 본	43(12.4)	97(28.0)	83(23.9)	16(4.6)	40(11.5)	114(32.9)	2.16	
장식	한 국	5(1.5)	29(8.7)	63(19.0)	141(42.5)	82(24.7)	12(3.6)	3.69	10.16***
	일 본	20(5.8)	71(20.5)	83(23.9)	52(15.0)	54(15.6)	67(19.3)	2.56	

*** $p\leq.001$

<표 28> 신발의 형태

(단위: n(%))

구 분	롱부츠	앵글부츠	구 두	스니커즈(운동화)
한 국	178(53.6)	35(10.5)	158(47.6)	166(50.0)
일 본	258(74.4)	107(30.8)	158(45.5)	87(25.1)

*()는 한국 여대생(n=332)과 일본 여대생(n=347)에 대한 비율임.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을 대상으로 겨울철 의복의 착용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겨울철 의복의 착용목적은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신체보호와 장식적 목적 양 측면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는 응답률이 가장 많았다. 겨울철 내복의 착용유무에서는 상의와 하의 내복 모두 한국 여대생보다 일본 여대생이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p \leq .001$). 내복의 형태에서는 일본과 한국 여대생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p \leq .001$), 상의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민소매 형태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하의는 한국 여대생은 스타킹, 일본 여대생은 타이즈 착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겨울철 겉옷의 착용형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겨울철 상의는 3겹을 착용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겨울철에 착용하는 외투의 형태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간에 약간의 차이는 보였으나, 주로 코트 형태를 선호하였다. 또한, 외투 안에 주로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폴라티나 티셔츠, 스웨터를 많이 선호하였다. 겨울철에 착용하는 하의의 스타일에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간에 현저한 차이($p \leq .001$)를 보였는데, 한국 여대생은 대다수가 바지를 주로 착용하는 반면, 일본 여대생은 스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액세서리 착용형태에서는 모자와 장갑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간에 거의 모든 질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 여대생이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leq .01$). 모자($p \leq .001$)의 경우 두 나라 모두 신체보호보다는 장식적 목적에 더 많이 동의하였고, 장갑($p \leq .001$)은 장식보다도 신체보호 목적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머플러와 귀막이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머플러의 경우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귀막이는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신발의 형태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롱부츠로 나타났고 한국 여대생은 롱부츠만큼이나 스니커즈도 선호한 반면 일본 여대생은 스니커즈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 여대생간 겨울철 착용활동에는 다소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은 지리적

으로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이며, 최근에는 미디어를 통한 한일문화의 개방과 한류의 붐 등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의복의 착용량에 있어서는 상의 착용량의 결과로 예측할 경우 한국과 일본 여대생 모두 3겹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두 나라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의복의 착용활동에 있어서는 두 나라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여대생은 일본보다 낮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내복의 착용보다는 머플러나 장갑 등의 액세서리로 신체를 보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의복의 착용활동의 차이는 의복의 구매동기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옥희(2005)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 간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보고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의류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차별화를 언급하였다. 각 나라간 문화적 교류는 의류산업의 글로벌화와 패션화의 진행을 가속화시켰지만, 더불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감성에 따라 의복에 대한 요구도 보다 구체화,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지역간의 착용량과 착용활동 및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보고는 폭넓은 의류제품시장으로의 진출과 성공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겨울철 표준착의량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뿐만이 아니라 내수 및 외수, 특히 일본 진출을 위한 의류생산업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국과 일본 여대생과의 착용활동에 관한 후속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승순, 이원자. (1999). 동한기 착용훈련이 피하지방두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4), 551-562.
- 세계기후. (2008). *기상청*. 자료검색일 2008. 6. 10. 자료출처 http://www.kma.go.kr/aaw2008/world_03.jsp
- 심부자, 최선희. (1990). 남자 대학생들의 착의상태에 관한 위생학적 연구. *기초과학연구논문집*, 7, 75-81.
- 오순. (1998). *서울, 연변간 착의실태 조사 분석. 착의량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옥희. (2005).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의복행동 비교. *복식문화연구*, 13(5), 743-755.
- 이옥희, 김진경. (2005). 일본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2), 298-306.
- 이원자. (1994). 표준착의량 설정을 위한 착의 분석. 서울과

- 뉴욕 지역 여대생의 착의량 비교. *건국대학교 생활문화 예술*, 17(1), 87-100.
- 이원자. (1997). 표준착의량 설정을 위한 착의 분석 II-서울과 뉴욕 지역 남자 대학생의 착의량과 적응수준비교.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 20(1), 51-66.
- 이찬주. (1979). 여름철(7,8월)의 속옷 착용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 의류직물 연구*, 10, 5-18.
- 정영옥. (1991). 표준착의량 설정을 위한 농촌 지역 주민의 착의 실태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혜원. (2004). 여성의 내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3/4), 422-432.
- 香川幸子, 盛田千子, 杉山理, 小林茂雄. (1993). 女子大生と母親の下着の着用意識について. *日本家政誌*, 44(7), 589-596.
- 海道貴子, 服部由子. (2005). 福井市およびその周に在住する大生の着用行動. *福井大地域環境究育センタ究紀要*, 12, 33-42.
- 稻垣和子, 山岸雅子. (1990). 女子大學生の着衣推移實態に関する研究(第1報). *日本維製品消費科誌*, 31(10), 25-34.
- 奥窪朝子, 酒井恒美. (1981). 環境温度と着衣量の關係考わる. *日本維製品消費科誌*, 22(6), 210-216.
- 奥窪朝子, 酒井恒美. (1986). 快適で健康的の着衣習慣形成のための着衣量の個人差に関する研究(第1-2報).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誌*, 27(12), 539-545.
- 田村照子. (1991). *基礎被服衛生學*. 東京: 文化出版局.
- 橋本光代, 小林茂雄. (2007). パンツスタイルとスカートスタイルにする心理的ファッションリスクと嗜好性によるその差違.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誌*, 48(11), 725-731.
- Fricisancho, A. R. (1979). *Human adaptation(a functional interpretation)*. London: The C.V. mosby company.